

#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

한국전통문화전당, 17~20일까지 인문학 관점 한식 관련 다양한 주제 명사 초청 특강

'전주한식'을 인문학 관점에서 접근한 강연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전주에서 개최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전당 4층 교육실에서 명사들과 함께 인문학 관점에서 한식을 만나볼 수 있는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 특강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명사 특강에는 해당 분야에서 인지도와 대중성이 높은 명사를 초청해 한식을 인문학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강은 ▲17일 고영 음식문화연구가의 '1720년 조선 청년이 남긴 와인 시음기' 강연을 시작으로, ▲18일 호서대학교 정혜경 교수의 '한식의 역사, 문화 그리고 콘텐츠' ▲19일 박찬일 셰프의 '노포에서 배우는 오래된 것들의 기억' ▲20일 박광범씨 안은금주 대표의 '전북 식자원으로 본 음식관광의 경쟁력' 등 한식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진행된다.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음식 관련 도서를 발간한 명사들을 통해 점점 잊혀져가는 한식 문화를 쉽게 풀어내는 물론, 인문학 관점에서 더욱 폭넓고 다채롭게 바라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 특강 포스터. 인문학 관점에서 더욱 폭넓고 다채롭게 바라

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번 특강은 한식에 대해 알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중단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로 잡았다.

접수는 전주음식이야기(jonjufoodstory.or.kr)를 통해 11일부터 화차별 6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이나 세부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음식이야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식문화진흥팀(063-281-1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당은 이번 특강 외에도 한국인의 기쁜 날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음식인 떡 문화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전주의 떡·벌어지는 떡' 조리체험을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특강은 의식주 중 가장 중요시 되는 식(食) 문화를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될 것 같다"며 "인지도 높은 명사들의 특강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한식의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 gallery숨 '공감·공유' 김성수 개인전

21일까지 진행

김성수 개인전이 오는 21일까지 gallery숨에서 열린다.

관람시간은 평일엔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30분, 토요일엔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까지다. 다만,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이 다.

gallery숨의 <공감·공유>는 전시공간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작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려는 gallery숨의 의지다.

작가에 따르면 Passengers Moving Scene은 스토리보드 형식의 작품 Passengers Chapter-1에 나오는 '외부의 침략과 폭격으로부터 달아나는 군중들의 모습'을 그림자극의 형태로 풀어낸 전시다.

앞을 향해 달리는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신체의 움직임이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처절한 몸의 의지를 반영한다.

작품의 운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관람객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 형태로 제작했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의 요소를 통해 극적 장면을 연출하는 조각의 연극성(theatricality)을 시도하고자 했다.

한편 김성수 작가는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장은성 기자

## 정읍시 다·르하미술관, 지역 작가지원 전시

공모 선정 8명 작가 작품 만날 수 있어

정읍시(정읍시립미술관)가 운영하는 다·르하미술관이 10일부터 지역 작가지원 전시를 선보인다.

다·르하미술관은 컨테이너에 유리를 설치해 안이 흰히 들여다보이도록 만들어진 작은 미술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8명의 작가 중 이미정, 이철재, 김선임 작가의 작품을 신태인, 연지, 수성 미술관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신태인 미술관에서는 이미정 작가의 '해질녘 노을빛-일상에서 여유를 담는다' 전시 열린다. 이미정 작가는 편안하고 친근함의 근원인 그리운 아버지를 주제로 관람객에게 행복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테라코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지 미술관에서는 이철재 작가의 '향수-이철재 유화 작품전'이 열린다. 이철재 작가는 자신이 살아온 고향(정읍)의 정경을 그리워하며 내면 깊숙이 고이 간직하던 고향의 풍경을 담은 서정적인 유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성동에 마련된 김선임 작가의 '물, 바람, 빛을 그리다'전은 변화하는 계절 속 투명하고 맑은 수채로 자연의 감성을 덧입혀



소나무와 꽃, 춤추듯 흐르는 물의 아름다운 향연 속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전시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휴관일 없이 신태인, 연지, 수성동 3개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단, 주간에는 햇빛에 의한 작품 손상을 막기 위해 17시부터 22시까지 야간에만 감상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다·르하미술관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공간에 위치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고도 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실외라는 공간적 장점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8월에는 2차 전시(이준 사진연구소, 김용련, 노준철), 10월에는 3차 전시(송정숙, 오은식, 시립미술관 연계 전시)를 열고, 지역 작가들의 예술 활동 진흥에 힘을 계획한다. /정은수 기자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아동 대상 인형극 순회 공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정정희)는 도내 시·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인형극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해 문화 소외지역에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은 10일 순창군을 시작으로 13일, 27일 군산, 6월 3일 완주, 10일 김제 등 총 5회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인형극 '우리 함께해요'는 이런 이야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형극으로, 극 속 주인공 아이가 그동안의 잘못된 성 관념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되는 과정을 통해 극을 관람하는 아이 또한 자연스럽게 성역할 구분 없이 자그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획됐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jbwr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故하반영 화백 '소박함이 주는 아름다움'展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는 오는 6월 26일까지 하반영 화백의 기증 작품 중 22점을 선정해 '소박함이 주는 아름다움'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하반영 화백은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었던 화가다. 선생은 어린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에 입문한 후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전 '르살롱'공모전 금상 등 국내외 다수의 수상과 전시 경력을 쌓은 예술가가 되었다.

선생은 군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해외를 넘나들며 작품활동을 펼치다 90대에 군산으로 귀향해 지난 2015년 타계시까지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다. 귀향 후 고향을 사랑하는 마

음으로 군산시에 100점의 작품을 기증, 군산시민과 관람객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전시 작품은 5월의 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5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풍경화 <금강산>, 한국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단감과 복숭아를 소재로 한 <막 때운 단감>, <복숭아 부부> 등 22작품으로 화백이 기증한 작품들이 다.

한편, 전시와 더불어 장미갤러리 1층에서는 하반영 화백을 기념하기 위해 생전 하반영 화백의 화실 내부를 재현한 공간과 화백의 유품, 관련 영상자료 등을 시청할 수 있는 기념 공간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어 전시 관람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군산=김관곤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상설공연 대학생 서포터즈 '영브랜드'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오는 20일까지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함께 할 12명의 서포터즈 '영브랜드(Youngbrand)'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브랜드'는 젊음(young)과 전북관광브랜드(brand)공연의 합성어로, '20대 젊은 청춘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브랜드공연'이라는 뜻의 서포터즈 명칭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을 주제로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북관광브

랜드상설공연 홍보마케팅 지원 등 '몽연-서동의 꽃'을 홍보하는 역할을 11월까지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관광에 관심이 많은 도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지원 자격은 SNS 또는 블로그, 유튜브 본인 계정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학생과 자원봉사, 서포터즈 등 유사 활동 경험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ct030204@j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022

부안마실축제

주최·주관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 마을을 잇다, 이야기를 담다!

2022. 5.5(목)~5.31.(화) 부안군일원

(주행사상 : 매장공연) YouTube 부안축제

# 부안마실축제

오프라인

매장공연일원

NEW별빛마실 / 마실소망 빛 / 마실방송국 / (부대프로그램)어슬렁투어 공연전시-마실소롱

온라인

www.buanmasil.com

찾아가는 행복공연 / 마실이 알고싶다 / 마실 뽐내기 콘테스트 / 마실, 마음을 잇다 / 부안, 랜선여행 공모전 / 땀! 완판요정 할매스 / 응원영상 챌린지 /